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02 제144호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이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연중 제6주일 (2월 14일)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마르 1,40-45)



### 나병환자의 기적 그림 / 정미연 소화테레사

사람들에게 내쫓기고 버림받은 나병환자의 간절한 애원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닦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봅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40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마르 1,40)

우리는 주님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청한 적이 있습니까?

†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마르 1,44)

우리는 주님과 의 약속을, 이웃과의 약속과 비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져 깨끗하게 고쳐 주십니다. 아무도 나병환자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나병환자를 만지면 부정을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환자를 어루만집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환자를 만지는 예수님의 손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나병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천국을 만들기도,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누고 치유하고 사랑을 베풀며 천국을 만듭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고 부수고 움켜쥐고 미워하며 지옥을 만듭니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시편 90,17)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순 제1주일 (2월 21일)

유혹을 받으시고 갈릴래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마르 1,12-15)



### 회개의 시작인 사순절 그림 / 정미연 소화데레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고독하게 앉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속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때인 사순절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 주님,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2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마르 1,12)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이며 유혹은 무엇인가요?

✚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

우리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있나요?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마귀는 인간의 응답 없이는 인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악마에게서 옵니다. 그것은 맨 처음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벌어졌습니다(창세 3,1-7). 오늘 복음에서는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공생활 내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까지 유혹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유혹과 패배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시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인류를 유인하고 있는 유혹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히브 4,15)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충실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3-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신앙과 친교의 못자리

### 남성동본당 구역분과장 허상희 골롬바

2021년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남성동본당 구역은 9개 구역, 1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중심, 재래시장에 근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구역 내 신자보다는 구역 외 신자가 훨씬 많아 소공동체 모임도 2개 구역 6개 반의 구역 외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원 9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들로써 외부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같은 분위기로 인해 소공동체 모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의 모임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아진 요즘이지만 꾸준히 반원 가정을 번갈아 방문하여 반모임을 개최하고 있어 분위기만큼은 여타 본당에 뒤지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보통 4~5명이 참석하지만 6~10명이 참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월 1회 소공동체 모임을 가지며, 월요일 모임은 직장에서 늦게 일을 마치는 젊은이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녁 8시에 개최합니다. 이렇게 젊은 남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다 보니 말씀나누기 등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고, 기도 후에는 간단한 음료와 다과를 준비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집니다. 또한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참석하게 되어 가정 성화는 물론 교우 간의 인간적인 신뢰 형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늘 반원들의 안녕에 귀 기울여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원이 있을 경우 전 반원과 교우들에게 연락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사람이신 하느님 아버지! 전능하신 당신 치유의 손길로 하루속히 코로나 19가 퇴치되어 우리 모두가 다시 예전과 같이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복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찬미하며 살아가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 소공동체는 어떻게 하나요?

### † 소공동체 구성원들의 집에서 모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삶의 현장인 구성원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수준에 편차가 있다 보니 나의 살림살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개방할 때에야 삶의 연대가 가능해 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아 부족함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타인의 풍요로움에 마음 두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의 집에서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복음이 삶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복음나누기를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복음나누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을 초대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회를 “하느님과 의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교회헌장1항)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교회의 핵심 단위인 소공동체의 모든 활동 역시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가 바탕 되어야 하며 복음나누기는 그러한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줍니다.

### † 활동을 합니다.

활동이 없다면 일반적인 기도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야고 2,26) 이라며 실천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들고, 궁핍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듯이 이웃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하느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 해야 합니다.

### † 보편교회와 일치합니다.

소공동체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소속 본당과 교구, 나아가 보편교회와 일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동일한 성사와 전례에 참여하고 같은 복음을 읽어 하느님 백성 전체 안에서 서로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체를 서로 방문하고, 사목협의회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본당과 강한 유대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보편교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지향하는 소공동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원교구 복음화국 「한마음 한뜻으로」 소공동체 교육교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